

# 한국 도자전문박물관의 전시특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xhibition Characteristics of Pottery Museums in Korea

조성남

대불대학교 디자인학부

CHO SUNG NAM

DAEBUL UNIVERSITY department of design

##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내용 및 범위

## 2. 박물관의 개념 및 국내 도자전문박물관의 현황

- 2-1 박물관의 개념
- 2-2 국내 도자전문박물관의 설립현황
- 2-3 각 박물관의 운영취지 및 성격

## 3. 박물관별 전시특성 연구

- 3-1 전시주제별 연구
- 3-2 전시유형별 연구

## 4.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오늘날의 문화는 대중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있으며 근거리에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증가로 우리의 생활은 훨씬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의 초기 박물관은 일본인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해방 이후에는 국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 등에서 유물이나 민속자료 등의 전시물을 통해 우리민족의 역사나 전통을 교육하는 문화교육 현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다룬 전문박물관의 출현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를 비롯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삶의 방식의 출현,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망라하는 등 박물관의 주제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또한 예술을 생활의 일부로 끌어들이 정서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일반인들의 문화충족 욕구와 관심의 증대가 전문박물관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90년대 이후 전문박물관의 증가와 함께 국내의 도자역사 및 지역의 예술과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문박물관이 전국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박물관은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으며, 특정소재를 테마로 생활주변에 있는 다양한 소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전문박물관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도자전문박물관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에 독특한 문화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은 각 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이나 역사성을 홍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개선 및 문화생활 영유를 위한 지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험하는 공간 조성을 박물관 운영의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도자전문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박물관 특성 조사 및 주요한 전시주제 및 전시유형 등 전시특성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도자문화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도자전문박물관, 전시주제, 전시유형)

## Abstract

Culture today is in the center of our daily life to make ordinary people understand and access to it easily by various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and commune with them. As the increase of the cultural facilities where people can learn and experience within short distance, we are able to live more plentiful lives and experience various cultures.

The initial domestic museums were built under the leadership of Japanese. After the liberation, national and university museums played a role as a cultural education field which educates our history and tradition through the exhibits of relics and folk materials. Recently, there are appearances of specialized museums that deal with subject materials of various areas.

The subjects of museums are getting diversified like dealing with nostalgia of traditional culture, the appearance of new life style and high tech industry. The museums with new concepts started to appear because there were the increase of people's interest and the desire of cultural satisfaction which pursues the emotional satisfaction as bringing the art into a part of the life.

In modern life, specialized museums which contain subdivided subjects in each area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From 1990s, the appearances of the museums which deal with specialized subjects have been remarkable, which is like natural history, folk life history, art, literature, science, animation, design, jewelry, automobile and dinosaur museums.

Domestic ceramics specialized museums reflect the local citizens' wills for promoting their own cultural superiority or historicity, vitalizing tourism industry, improving the local image and possessing cultural life. The main management strategies of those museums are to lead the interest into the culture and build the space for cultural experience.

In this study, we aim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eums according to the objectives of the foundation and analyze the exhibit tendency while focusing on the domestic specialized ceramics museums. Then we use the data for the prospect of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ceramics cultural exhibits and the directions in the future.

### Keyword

(Museum, Theme of the exhibition, Category of the exhibition)

## 1. 서론

### 1-1. 연구목적

과거에는 문화향유의 개념이 일부 한정된 장소 및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나 관련자 외에는 문화를 영위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는 대중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감하기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있으며 근거리에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증가로 훨씬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경험

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총독부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시각에 의한 문화유산의 수집 및 발굴을 통한 박물관 개관 및 운영은 일제의 지배의 근거로서 또는 일본인에 의해 발굴된 우리문화유산의 전시 등에 의한 박물관 운영으로 우리문화유산을 타의에 의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내 박물관은 일본인에 의한 박물관의 운영 개념이 그대로 이어졌으며 국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 등 주로 대규모의 시설에서 발굴과 관련된 유물이나 민속자료 등의 전시물로서 우리민족의 역사나 전통을 교육하는 문화교육 현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박물관은 국가나 대학 등에서 설립하는 대규모의 박물관 이외에도 소규모의 전문박물관의 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자치단체나 문화재단, 개인 등 그 운영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박물관의 목적과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정소재를 다룬 전문박물관의 출현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박물관의 전시물은 과거의 유물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도구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현대적 산물, 예술, 첨단산업 등 현대인의 삶과 결부된 매체를 선택하고 전시함으로써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의 박물관은 보다 영역별로 세분화된 주제를 담은 전문박물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에서 수집하고 전시하는 자연, 역사, 과학과 관련된 사물 또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가 하면 해석과 함께 곁들여서 보는 3차원의 전시물을 통하여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Neil Kotler & Philip Kolter, 2005)

특히 90년대 이후부터 자연사, 민속생활사, 예술, 문학, 과학을 비롯하여 애니메이션, 디자인, 보석, 자동차, 공룡박물관 등 다소 생소하고 특수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보다 전문적인 박물관의 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에는 도자를 주제로 한 도자전문박물관의 등장으로 인해 도자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예술성 연구 및 문화적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각 지역의 도자전문박물관의 전시경영 전략은 그 지역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지역의 문화와 관광이미지 고취를 위해 건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도자문화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천, 광주, 여주의 박물관을 비

못해서 김해, 김천, 영암, 강진, 목포, 양구, 문경, 부천, 부안(개관예정)등 자치단체나 문화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뿐만 아니라 서울, 과주, 대전 등지의 사립박물관 등 90년대 이후 도자전문박물관의 설립은 꾸준히 계속되었고 전국각지에 도자를 테마로 한 특성화된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등록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운영현황과 전시경향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도자문화 및 박물관 전시문화 발전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범위

현대의 도자문화는 전통도예와 현대적 개념의 도자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옹기 등 전통도예분야와 조형성을 강조한 오브제로서의 현대도예 및 생활 속 쓰임을 위한 생활도자와 산업도자를 비롯하여 국외의 도자문화가 혼재한 상태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도자문화가 차별화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국내의 도자전문박물관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이나 역사성을 홍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개선 및 문화생활 영유를 위한 지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 조성을 박물관 운영을 위한 주요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나 산업경제, 예술경향 등 차별화된 소재를 가진 전문도자박물관의 꾸준한 증가로 현대의 도자문화의 위상이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형도자이벤트 추진 및 박물관 운영은 현대사회에서의 도자문화의 역할과 중요성을 가늠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대의 도자전문박물관 운영의 기본 방침이 되고 있다.

박물관의 설립 동기는 박물관 개관 목적 및 전시운영과 관련되며 전시는 박물관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도자전문박물관의 전시경향 연구를 위해 일반적인 박물관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하고 박물관의 운영현황과 전시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2010년 7월말 약 6일간 일정으로 국내 도자전문박물관을 방문 조사하여 기본자료와 사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일부 부족한 자료는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 2. 박물관의 개념 및 국내 도자전문박물관의 현황

### 2-1 박물관의 개념

전통적인 박물관은 일반 서민들은 향유할 수 없었으며 귀족이나 특권계층을 위한 문화로서 출발하였다.

최초의 박물관은 기원전 3세기 이집트 Alexandria에서 알렉산더 대왕 뒤를 이어 즉위한 Ptolemy II Philadelphus에 의해 건립되었다.(Neil Kotler & Philip Kolter, 2005)

그리고 기원전 2세기 고대 로마시대에 박물관은 식민지와 군사작전에서 약탈한 물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하였다.(Neil Kotler & Philip Kolter, 2005)

16세기에는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이탈리아에는 개인이 훌륭한 예술품을 수집하는 것이 붐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각종 동식물학적인 표본을 비롯하여 역사적 유물, 해골유물, 골동품, 조개류, 동전, 청동상, 조각, 회화에 이르는 다양한 것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유사한 건물이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다.

현대 유럽과 영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수집품들은 왕과 귀족, 또는 교회가 모은 것으로 이후에는 부유한 상인계급이 수집하였다. 이 수집품들은 주로 궁전이나 웅장한 개인 저택에 진열되어 극소수 상류계층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었다.(Neil Kotler & Philip Kolter, 2005)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18세기 런던에서는 처음으로 신분과 지위와 관련 없이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공 박물관이 건립되었고(Neil Kotler & Philip Kolter, 2005) 오늘날 박물관에 대한 인식은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개념이 정착되어 있다.

일반시민의 지위상승과 더불어 왕과 귀족 및 부유한 상인의 전유물이었던 문화향유의 특권을 서민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경우 서양의 박물관의 출현과 맥을 같이하여 지배층의 의지와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박물관 10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학술행사 및 전시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박물관의 출현을 1909년 <제실박물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실박물관은 왕실박물관으로 초기의 박물관은 역사성 조명이나 전시물에 담긴 의미보다는 감상의 목적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차츰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전시물에 담긴 역사의 흐름이나 문화유산의 우수성 등이

박물관의 전시목적에서 중요한 이유가 되었으며 이 제는 전시의 목적이 현대인의 문화적 다양성 수용하 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박물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박물관/미술관은 관람객 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데미비드 던, 1991) 오늘날의 박물관은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 게 생각하며 이러한 경향은 전문박물관의 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박물관은 역사와 생활 또는 사회의 다양한 산물을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통해 수집하고 제시함 으로써 대하여 전시소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사례제시를 기본적인 특성으로 한다.

특정소재의 전시품에 내재된 사고나 생활의 변화 를 보여주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며 전시디 자인, 전시동선, 조명, 시각적 홍보물 등 보조적인 장치 를 보완하여 전시효과를 높이고 박물관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박물관의 등장과 증가는 박물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전략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의 박물관은 주말이면 나들이 코스로 활용되거 나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박물관 의 독특한 전시품은 관람동기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되고 있다.

## 2-2 국내 도자전문박물관의 설립현황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문화 활동의 보편화 및 대중예술로서의 도자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도자분야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면서 감상용을 비롯한 실생활에서의 도자의 활용이 증가했으며 삶의 여유나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학에서의 전문 인력 배출에 의한 전문도예가 및 도예전통을 이어온 장인들에 의 해 이루어진 활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주로 현대인이 추구하는 미적감성이나 생활도자 의 기능을 고려한 다각도의 실험을 통해 디자인 개 념을 도입한 도자기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자 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생활공 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자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계층의 증가 및 첨 단 산업의 발달로 도자제작에서 편리한 설비나 재료 선택의 다양성으로 현대의 도자문화는 다양한 이미 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문화를 테마로 한 여가 활동 의 대상으로서 도자전문박물관의 설립에 영향을 주

었다.

국내의 도자전문박물관은 <표1>에 나타난 것처 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전국적으 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운영주체는 현재 박물관으 로 등록된 기관 중에서 일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 립박물관, 일부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 는 박물관도 있다. 이들 재단에 의해 운영되는博物 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기금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의 박물관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 는 공립박물관 형태로서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 기까지 각 지역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주도로 운영되 고 있다. 또한 단순한 운영의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의 수익성이나 흥행성이 박물관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1>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도자전문박 물관은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추세 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세계도자엑스포 및 비엔날레를 통해 백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도자역사와 문화를 소개 하는 행사가 대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서울 및 인접된 경기지역에 비교적 많은 수의 사립 박물관이 분포하고 있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 권지역의 인구 및 경제구조를 반영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각 광역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은 박물관이 분포 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전남지역은 도기, 청자, 생활도자 등 다양한 주제의 도자전문박물관이 분포 되어 있어 도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산업이나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표1] 국내 도자전문박물관 현황

| 구분       | 명칭         | 소재지 | 개관/등록     | 운영주체   |
|----------|------------|-----|-----------|--------|
| 서울<br>경기 | 옹기민속박물관    | 서울  | 1991/1993 | 개인     |
|          | 이천세계도자센터   | 이천  | 2002/2007 | 한국도자재단 |
|          | 여주세계생활도자관  | 여주  | 2002/2007 | 한국도자재단 |
|          | 경기도자박물관    | 광주  | 2001/2005 | 경기문화재단 |
|          | 한향림옹기박물관   | 파주  | 2004/2009 | 개인     |
| 강원       | 유럽자기박물관    | 부천  | 2003개관    | 부천시    |
| 강원       | 방산자기박물관    | 양구  | 2010      | 양구군    |
| 대전       | 동산도기박물관    | 대전  | 1997      | 개인     |
| 전북       | 부안청자전시관    | 부안  | (개관예정)    | 부안군    |
|          | 강진청자박물관    | 강진  | 1997/2006 | 강진군    |
|          | 영암도기박물관    | 영암  | 1999/2009 | 영암군    |
| 전남       | 목포생활도자박물관  | 목포  | 2006/2008 | 목포시    |
|          | 문경도자기전시관   | 문경  | 2002/2009 | 문경시    |
| 경북       |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 김천  | 2006      | 김천시    |
| 경남       | 클레이아트미술관   | 김해  | 2006      | 김해문화재단 |

## 2-3 각 박물관의 운영취지에 따른 전시현황

국내 도자전문박물관은 설립취지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방침을 정하여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행사나 교육을 위한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경영자가 관람객과의 소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박물관/미술관에 따라, 전시에 따라, 그리고 지역사회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데미비드 딘, 1991)

우리나라 도자전문박물관의 설립은 지역의 가마터 출토품의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의 계승이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역사교육의 장(場)으로서 경기도자박물관(백자), 강진청자박물관(청자), 영암도기박물관(시유도기) 등이 있으며 조선왕실도자기 제작을 위한 재료 수급지로서의 양구지역 백자점토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토대로 한 방산자기박물관, 지역 내에서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기반이 되는 지역민의 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으로서 여주세계생활도자관(생활도자기), 문경도자기전시관(찾사발), 목포생활도자기전시관(산업도자)이 있다.

또한 한국의 옹기와 도기 등을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전시하는 옹기민속박물관, 한향림옹기박물관, 동산도기박물관 등 사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유럽의 자기예술품을 알 수 있는 전시로서 개인 수집 도자기의 기증을 통해 이루어진 부천유럽자기박물관,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등 설립 동기나 도자의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 외에도 현대도자의 조형성을 부각하고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설치작품 등 실험적 작품 전시로 일반인들의 도자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박물관으로서 이천세계도자센터, 도자와 건축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건축도자로서의 도자의 가능성과 예술성을 실험하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등이 있다.

각 도자전문박물관은 그 성격이나 설립 동기는 다르나 공통 목표는 도자문화의 대중성 확보나 일반인들의 이해도 증진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도자문화형성을 위한 현대도자의 방향성을 고민한다는 데 있다.

이들 박물관들은 박물관의 고유의 성격을 보여주는 특정분야에 치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대도예의 다양한 장르를 해당 박물관의 성격과 연관 지어 기획한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도자전문박물관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전략을 알 수 있다.

아래 설명하는 각 박물관은 방문조사(2010년)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박물관의 특성과 전시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보충하였다.

<강진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생산지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강진은 통일신라 후반기부터 고려 말까지 청자를 굽던 곳이다. 고려시대 관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그릇은 주로 고급품으로 왕실용으로 생산되었고 이러한 강진청자의 역사적 배경을 널리 알리고 고려청자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전시는 주로 가마터별로 출토된 청자파편을 비롯하여 수집 및 구입을 통한 청자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청자제작과정을 미니어처 형태로 구성하여 청자성형에서 소성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최근에는 청자와 현대의 설치미술을 결합한 전시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기도자박물관>은 조선의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했던 관요가 위치한 광주(경기도)에 분요의 생산품에 대한 자료 수집, 보존, 연구,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한 박물관으로 백자의 생산시기별, 기법별로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 분원백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전시물은 조선관요 생산품을 전시한다. 상설전에서는 백자제작과 관련된 생산 공정이나 재료, 장식기법 등을 다양한 실물과 시각적 사인(sign)물을 활용하여 일반인들이 백자의 제작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기획전은 전통도자에서 현대도자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장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전통, 예술, 디자인 등 현대 도자의 경향을 보여주는 전시를 비롯하여 해저 발굴 유물 전시 등 역사성과 현대적 개념의 도자를 포함하는 전시유형을 보여 준다.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은 개인기증자(복전영자)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유럽의 자기예술품과 크리스탈, 유리, 앤틱 가구 등 유럽도자의 장식성, 예술성, 화려한 귀족적 스타일을 강조한 산업도자 제품을 전시한다. 기획전은 국내의 전통도자를 기반으로 한 백자, 분청 등 국내도예가의 초대 전시를 비롯하여 해외의 도자작품을 전시한다.

<동산도기박물관>은 토기, 질그릇, 옹기 등을 수집, 보존, 전시, 연구하고 있는 도기(陶器) 전문박물관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1997년 3월에 개관한 대전 최초의 사립박물관(dongsanmuseum.org, 2010)으로 도자기 이외에도 석공예품, 고서, 민속공예품 등 다양한 장르의 수집품을 수장하고 있다. 기획전은 전통도예의 특성을 가진 작가의 작품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생활공간의 변화에 따른 도자의 변화와 산업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 전시 공간을 통해 보여준다.

목포는 194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자본에 의

한 현대적 생활도자 공장을 세우고 (doja.mokpo.go.kr, 2010) 산업도자 등 현대의 생활도자를 집중적으로 생산한 지역으로 지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인근에 산업도자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과거부터 현대까지 산업도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전시, 산업도자 제작과정을 비롯하여 기획전에서는 산업적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수작업에 의한 생활도자와 공모전을 통해 선별된 현대의 생활도자의 흐름을 함께 볼 수 있다.

<문경도자기전시관>은 조선 초 분청사기 및 백자 도요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문경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 지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과 노동부에서 지정한 도예명장이 3명 등 다수의 장인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설전에는 문경지역에서 출토된 도자유물을 비롯하여 야외에는 도자공방의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기획전은 문경 찻사발 축제와 연관 지어 찻사발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예가의 작품과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주로 전시한다.

<방산자기박물관>이 위치한 양구군은 조선 후기 왕실 분원에서 생산되던 백자원료의 주요 공급처 가운데 한 곳으로서 6.25이전까지도 요업이 계속되었던 곳(www.bangsanm.go.kr, 2010)으로 조선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 우리나라 근대도자 산업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다. 상설전에서는 방산인근에서 만들어진 백자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기획전은 방산백토를 활용한 도예가의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한다.

<부안청자전시관>은 전북 부안에서 만들어진 고려시대 청자의 역사성과 토대로 개관예정인 곳으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옹기민속박물관>은 전통옹기를 보존하고 옹기의 의미와 조형성을 재조명하는 등 현장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이 수집한 옹기를 전시하는 곳이다. 주로 전통옹기를 중심으로 지역적 옹기의 특징이나 옹기의 명칭, 용도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전역에서 만들어진 옹기의 독특함과 예술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그 외에도 조상들이 생활에서 사용한 다양한 민속자료들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일부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옹기는 전시하기도 한다.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은 국내·외 현대도예가의 생활도자작품을 주제로 현대 도자 디자인의 경향을 진단하고 생활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조명

하는 공간으로 세계 유명 기업이 제작한 산업도자부터 폭넓은 조형세계를 보여주는 주전자, 도자조명, 아름답고 실속 있는 생활용기 등 다양한 생활도자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기획전에서는 실용기의 활용을 보여주는 테이블 세팅 또는 공간조형을 다양한 재질의 소품을 배치하여 생활도자의 활용을 제안하는 테이블 데커레이션 개념을 도입한 작품을 전시한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국내 시유도기를 통해 기존의 도기문화의 혁신을 일으킨 구림도기<국가사적338호 출토품>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 체험, 교육으로 영암의 전통도자문화의 선진을 홍보한다. 상설전에서는 구림도기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 옹관, 고려도기, 옹기 등의 전시로 도기의 흐름을 보여준다. 기획전에서는 전통 및 현대를 아우르는 현대도기를 중심으로 현대도자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작품을 전시한다.

<유럽자기박물관>은 18세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럽자기를 중심으로 크리스털 작품과 엔틱 가구로 구성되어 유럽문화와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며 유럽자기의 예술성과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산업도자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품 기준은 김천 세계도자기박물관의 기준자와 동일하며 국내의 한국도자기나 행남자기 등의 작품을 동시에 전시하고 있다.

<이천세계도자센터>는 조형성을 부각시킨 세계도자예술의 흐름과 경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으로 매년 도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획·특별전을 통해 세계현대 도자의 예술적 문화적 현상들을 분석하며 동시에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현대도자의 선두주자로 규모나 내용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를 갖고 있으며 야외에는 조각적 특성을 가진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기획전에서는 도자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통 및 현대도예작품과 패션, 금속, 섬유 등 타 공예분야와 연계한 설치작품으로 장르의 파괴를 시도한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과학과 예술, 교육, 산업의 협력을 통한 건축도자 분야의 미래발전을 (www.ciayarch.org, 2010) 기본 정신으로 환경과 관련된 건축 및 생활도자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도자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나 기획전에서는 화가 등 타 분야의 예술가와의 제휴를 통해 건축도예의 영역을 타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건축도자를 창출하고자 한다.

<한향림옹기박물관>은 우리옹기의 우수성과 아

름다움을 심도 있게 보여주고자 하는 공간(www.heyigallery.com, 2010)으로 옹기소품에서 대형항아리에 이르기까지 옹기를 소재로 한 특별전과 기획전을 주로 개최한다. 야외공간에 대형의 항아리로 구성된 옹기정원은 옹기의 자연스러운 색감과 형태미를 잘 볼 수 있다.

### 3. 박물관에 따른 전시유형 연구

#### 3-1 전시주제별 연구

우리나라의 도자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동안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아름다운 전통도자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실험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스타일의 도자문화의 형성으로 최근의 도자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 각 영역을 넘나드는 등 새로운 도자문화 형성을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도자박물관 전시는 전통과 현대의 도자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각 박물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컨셉을 선정하여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엔 소장품을 단순히 진열하는 것이 곧 전시가 되었던 사례들도 존재하였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박물관 특히 규모가 큰 기관들은 소장품을 일정기준을 두고 선진하여 전시를 하기 마련이다.(마이클 벨처, 2006)

본 연구에서는 도자의 분류나 작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주제별 구분에 따른 전시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사진은 박물관 방문을 통해 수집한 사진자료이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홈페이지자료를 활용하였다.

##### 3-1-1 도자역사를 주제로 한 전시



그림 1 경기도자박물관 상설전



그림 2 방산자기박물관 상설전



그림 3 문경도자기전시관 상설전



그림 4 강진청자박물관 상설전(홈페이지)



그림 5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상설전(홈페이지)



그림 6 영암도기박물관 상설전

경기도자박물관은 백자의 역사성과 흐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백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 테마박물관이며 분원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백자를 전시하고 있다.

방산자기박물관은 조선시대 왕실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한 분원 생산 백자의 원료 수급지로서 백색도가 좋은 양질의 백토와 양구에서 만들어진 백자들이 전시되어 있다.

강진청자박물관은 대규모 청자제작지로 유명한 강진지역의 도자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고려 왕실에서 사용했던 고급청자나 정교하고 세밀한 조형성이 두드러지는 우수한 청자를 전시하고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시유도기의 역사성을 토대로 한 박물관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림도기가마터에서 출토된 도기유물과 옹관, 고려의 도기, 옹기 등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문경도자기전시관은 조선초 분청사기, 백자 가마터가 있는 곳으로 가마터에서 발굴된 문경의 도자기를 비롯하여 공방터를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생활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생활용 도자기를 전시하는 곳으로 산업도자와 수작업 생활도자를 토대로 전통도예로부터 현대도예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변화를 보여준다.

##### 3-1-2 개인의 수집에 의한 도자유물 전시





그림 7 용기민속박물관 상설전



그림 8 한향림옹기박물관 상설전



그림 9 동산도기박물관 상설전

옹기는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와의 깊은 연관성과 과학적 기능성을 통해 실용기로서 높은 활용도를 인정받은 대중적인 살림도구였음에도 도자문화의 독자적인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렴하고 격이 낮은 그릇으로서 인식으로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옹기의 우수성과 독창적인 도자분야의 하나로 옹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한 개인 수집가들에 의해 수집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다양한 형태와 용도 및 지역별로 독특한 미감을 가진 옹기를 주제로 한 사립박물관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용기민속박물관과 한향림옹기박물관은 옹기소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옹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아 쓸모가 없어졌거나 플라스틱, 금속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생활도구에 밀려 없어질 사라질 위험 처한 옹기 등 희귀한 옹기와 지역별 특성을 가진 옹기 등 다양한 생활용구들을 전시하고 있다. 동산도기박물관은 도기를 테마로 한 박물관으로 연질, 경질 도기 및 옹기 등의 도기를 주로 전시하고 있다.

### 3-1-3 전통도예를 소재로 한 현대작품전시



그림 10 경기도자박물관 기획전



그림 11 영암도기박물관 기획전



그림 12 방산자기박물관기획전

경기도자박물관은 국내의 전통도예(청자, 분청사기, 옹기, 백자)의 계승이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현대 도예가를 선정하여 기획 · 전시함으로써 전통과 현대도예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영암도기는 도기에 바탕을 둔 현대도예가의 도기 작품 전시를 통해 도기로서의 현대도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고하고 현대도예가의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전시하여 현대도자에서 시유도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를 보여준다.

방산자기박물관은 지역에서 산출되는 백토를 활용한 현대도예가의 작품 등을 전시하여 지역의 도자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시개최는 물론 일반 현대도예가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 3-1-4 현대도예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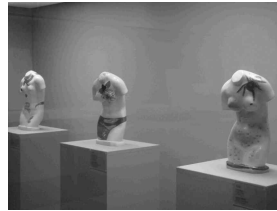


그림 13 이천세계도자센터 기획전



그림 14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기획전 (홈페이지)

이천세계도자센터는 주로 현대도자 분야의 오브제로서 조형성을 강조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역사성을 토대로 한 도자박물관과 다르게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의 도예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도자분야에서 역사적 유물만큼 현대사회의 미의식과 도자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새로운 개념의 도자를 전시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세계의 저명한 도예가의 작품은 물론 국내의 여러 도예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건축을 테마로 한 전시를 주제로 한다. 건물외관에서부터 도자와 건축의 결합을 통해 예술과 건축의 결합을 통한 현대 건축의 방향성과 개념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으로 건축

도자의 예술성을 강조하고 있다.

### 3-1-5 생활도예를 소재로 한 전시



그림 15 여주세계생활도자관 기획전



그림 16 유럽자기박물관 기획전



그림 17 김천세계도자기 박물관 상설전



그림 18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홈페이지)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은 대량생산 방식에 의한 유럽의 식기부터 식기로서 기능성을 가진 국내·외 도예가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식기 및 생활도구를 전시하고 있다. 도자의 스타일은 기능성을 중시한 작품부터 조형성과 기능성이 접목된 기능적 생활용기 및 실험적인 스타일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전시한다.

유럽자기박물관과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은 유럽의 산업도자를 중심으로 한 식기 및 조형소품, 도자 액자 등 산업도자기법을 활용한 제작방법과 다양한 문양을 페인팅 또는 전사지로 장식한 화려한색상의 다채로운 문양의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다.

목포생활도자전시관은 대량생산을 위한 도자제작 기법을 토대로 한 산업도자 및 개인공방에서 생산한 생활도자를 전시한다.

### 3-2 전시유형에 따른 연구

도자전시는 단순히 전시대에 올려 관람객들이 일방적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도록 하는 유형에서 벗어나 작품의 스타일과 형태 및 용도에 따른 다양한 쓰임을 비롯하여 현대공간에서의 활용을 위한 공간 연출을 통한 다차원적인 전시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도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소품과 생활공간 구성에 따른 연출과 현대의 설치미술로서의 도자 등 도자전시의 다변화를 겪고 있다.

전시스타일은 주제별 구분이외에도 전시의 형식과 기능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진다.

형식에 따른 분류는 주로 전시의 기간과 장소와

관련이 있는 반면, 기능적 분류는 전시의 컨셉과 관람객에게 미치고자 하는 효과에 초점이 주어지는데 감정에 호소하는 전시, 교훈적인 전시, 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전시로 대별된다.(마이클 벨처, 2006)

예술도자로서의 특성이 접목된 설치도자는 환기적 전시 또는 낭만적 전시 유형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전시적 특성을 보여준다. 각각의 작품이 갖는 조형적 특징 이외에도 설치공간이나 주변의 사물을 스타일링 하는 방법에 따라 작품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소 생소하고 파격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내에서 이러한 설치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곳은 이천세계도자센터나 여주생활도자전시관을 비롯하여 김해미술관 클레이아크 등으로 현대미술을 모티브로 설치개념이 두드러지며 실험적인 접근에 의한 도자전시를 보여준다.

그 외의 도자전문박물관은 도자작품을 역사별, 테마별로 나누어 개별적인 나열유형 전시를 기본으로 부분적인 설치나 테이블 구성을 통해 전시품을 보여주기도 한다. 나열유형의 경우 감상을 방해하는 시각적 구조물을 제거한 상태로 도자가 갖는 근본적인 조형미를 부각하고 개별적 도자작품의 개성과 본질을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자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묘사한 각종 시각적 사인(sign)물이 중심을 이루는 전시는 정보전달을 위주로 관람객의 지적인 자극, 적극적인, 사고 및 학습을 유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이나 예술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도자전문박물관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달라진 도자문화와 그에 따른 현대적인 공간에서의 쓰임과 어울림을 제시하는 도자 전시로 도자문화의 대중성이나 생활 속에서의 도자의 미의 구현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3-2-1 설치전시 유형



그림 19 이천세계도자센터 명인명품전



그림 20 이천세계도자센터 MIXED-UP



그림 21 여주세계생활도자관



그림 22 부천유럽자기박물관  
나를 사로잡는 리빙오브제



그림 23 옹기민속박물관  
상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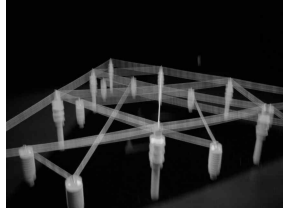


그림 24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기획전  
(홈페이지)

이천세계도자센터의 명인명품전은 도자 및 공예 예술의 명인들의 작품을 전통공간을 재현하여 본래의 쓰임을 보여주고 어울림을 강조하여 전통예술의 중요성과 전통공예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천세계도자센터 MIXED-UP전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설치미술의 특징을 접목하여 넓은 공간에 펼쳐 보임으로써 현대도자가 갖는 생동감이나 혁신적인 이미지표현을 통해 기존의 전시 공간 특성과 다른 유형을 보인다.

여주생활도자전시관의 나를 사로잡는 리빙 오브제 전시는 생활도자의 기능성에 따라 도자기가 쓰이는 환경을 임의로 구성하여 각각의 도자기의 쓰임에 따른 공간 연출로 현대인의 식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대공간에서의 도자기의 쓰임을 제안하는 전시이다. 도예가의 그릇과 테이블코디네이터 및 공간연출가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전시이다.

옹기민속박물관은 옹기테마박물관으로 옹기가 놓였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장독대를 조성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옹기의 조화를 통한 전통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부천유럽자기박물관은 유럽을 비롯한 국내 유명 산업도자회사의 도자식기 및 조형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유럽스타일의 식탁공간을 조성하여 식기의 쓰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활자기를 수납하는 엔틱 가구 등을 전시하여 유럽도자와 관련된 공간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클레이아크는 전시소재의 특성상 일반적인 반복

나열보다는 설치전의 특성을 통해 건축소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수한 효과를 통해 건축 재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한 설치경향을 담은 조형스타일을 강조한다.

### 3-2-2 나열전시 유형



그림 25 김천세계도자기-  
박물관 상설전



그림 26 동산도기박물관  
박물관 상설전



그림 27 방산자기박물관  
기획전



그림 28 영암도기박물관  
기증작 상설전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은 유럽각국의 산업도자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특징과 설명을 배치하여 산업도자의 역사와 조형성을 보여준다.

동산도기박물관은 수집품을 도자종류별로 구분하여 도기 이외에도 분청사기나 백자 등을 나열하여 수집품의 특성과 기법 및 역사 등을 기록한 패널로 도자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방산자기박물관은 주로 백자를 중심으로 여러 현대도예가의 작품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열 배치하여 전시하고 있다. 기획전은 상설전시를 위한 고정된 벽면을 사이에 두고 여유 공간에 분산시켜 전시하는 공간 활용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도예가의 작품을 테마에 따라 한 공간에 배치하여 작가별 작품의 특성과 조형성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나열해서 전시하고 있다. 또한 제일교포 사업가(하정웅)의 기증작은 별도의 전시실을 구성하여 전시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도기를 아우르는 도자전시를 보여준다.

### 3-2-3 설명전시 유형

도자의 역사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은 역사성과 특성 그리고 지역의 가마터를 알리고 교육적 목적을 위한 전시로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와 설명을 덧붙여 도자기의 제작과정이나 재료 및 역사적

흐름에 따른 유물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는 전시를 한다. 경기도자박물관 및 영암도기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 문경도자기전시관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림 29 경기도자박물관 상설전



그림 30 영암도기박물관 상설전



그림 31 강진청자박물관 상설전

경기도자박물관은 백자의 원토부터 성형 건조, 유약, 소성 등의 전반적인 생산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시도구를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가마터별 특징과 파편을 전시하여 분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영암지역의 독특한 옹관묘와 시유도기의 출발로 알려진 구림도기를 중심으로 지역의 도자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주변의 지형을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도기가 만들어진 환경과 유통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도자연대표를 통해 구림도기의 도자사적인 위치를 보여준다.

강진청자박물관은 주변에 산대한 다수의 가마터별로 다양한 장식기법과 색상, 조형적 차이를 가진 파편과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청자 제작과정을 설명한 축소모형으로 가마의 형태나 성형 등에 대한 설명이 시각적인 모형자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3-2-4 영상물 활용 전시유형



그림 32 여주세계생활도자관 기획전



그림 33 이천세계도자센터 기획전



그림 34 경기도자박물관 상설전



그림 35 방산자기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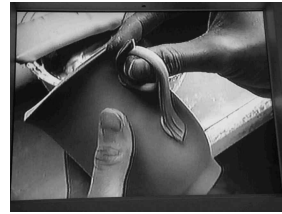


그림 36 부천유립자기박물관 상설전



그림 37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상설전

현대의 박물관은 전시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정지된 전시물이 갖는 정보전달의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직접적이고 생생한 정보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상매체는 실물을 직접 전시할 수 없는 경우나 단일한 입체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김인권, 2004)

도자의 특성상 물질의 특성이 화학적 변화를 통해 기존의 점토가 가지고 있던 특성이나 재료의 독특한 특징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상 및 성질의 창작물로 구현됨에 따라 도자에 대한 이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복잡하고 세분화된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자 전시물의 보충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전시요소로 활용한 다차원적인 전시물로서 본 조사 자료에서 제시한 박물관 이외에도 다수의 박물관에서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 4. 결론

현대의 박물관은 유물, 작품 등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형상을 전시하고 보존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전시물이 갖는 추상적인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유물이나 작품 속에 내재된 작가의 생각이나 삶과의 연관 등 전시물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유도하고 있다.

역사성을 토대로 한 전통도자의 경우 제작된 시대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유추하거나 조형미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물은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지고 사용되는데 특히 도자분야에서

는 실생활에서의 도자의 기능성이나 활용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며 삶의 방식과 정신을 담은 그릇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도자문화는 과거의 도자문화가 지향했던 목적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현대의 도자문화는 크게 전통을 주제로 한 도자문화와 예술개념이 접목된 조형도자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도자문화의 역사성을 중시한 도자전문박물관과 현대도예의 경향을 보여주는 현대도자박물관의 증가는 이러한 도자의 전문성과 세분화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도자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이나 도예가의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과거 도공, 또는 장인의 개념으로 인식된 도예가의 위상을 현대사회에서는 예술가 또는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도자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박물관이라는 특정영역에서 도자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적인 당위성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도자전문박물관의 활동은 도자가 갖는 개성과 예술성을 함축하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박물관의 역할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통도자문화의 우수성을 토대로 한 관광효과 창출과 지역의 경제구조와 관련된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의지도 박물관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의 도자전문박물관의 여러 가지 활동은 도자, 도예가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되며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도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그리고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박물관의 운영전략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의 도자전문박물관의 전시정책이 일반인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컨셉을 제시하거나 또는 예술로서의 도예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일상과 차별화함에 따라 대중화된 도자문화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관람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의 박물관의 역할 확대에 따라 도자전문박물관의 운영이나 전시정책은 지역민과 관람객과 소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박물관은 수익성이 박물관 운영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문화의 대중화과정에서 시장성, 수익성이 대중의 호응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면에서 도자전문박물관에서도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시개최 및 도자문화와 관련된 수입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경제논리에만 치중한 수익중심의 문화경영은 저급한 문화형성을 야기할 것이며 이것은 도자문화의 침체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박물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통한 이윤창출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운영주체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각 도자전문박물관들이 차별화된 운영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자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도자문화는 이상(理想)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과의 관련성을 통해 지속적인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통문화가 과거 조상들의 생활을 담은 그릇이라면 현대문화는 우리의 삶을 담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한 도자전문박물관의 수적인 증가만큼 최근 도자문화의 현실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다는 것이 현시대 도자문화의 불편한 진실이다. 현실적인 예산문제나 운영주체의 의도에 따른 도자전문박물관의 경영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 또한 현대의 도자문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박물관을 통해 도자문화를 중심으로 대중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데이비드 딘 (1991). 미술관 전시, 이론에서 실천까지. 전승보 역. 학고재.
- Neil Kolter & Philip Kolter (2005). 박물관 미술관학. 한중훈·이혜진 역. 박영사.
- 마이클벨처 (2006). 박물관 전시의 기획과 디자인. 신자은·박윤옥 역. 예경.
- 김인권 (2004). 전시디자인. 태학원.
- 김윤구 기자(2009. 9. 30). 서울연합뉴스

### 박물관홈페이지

- 경기도자박물관 [www.ggcm.or.kr](http://www.ggcm.or.kr)
-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www.gimchen.go.kr](http://www.gimchen.go.kr)

- 동산도기박물관 [www.dongsanmuseum.org](http://www.dongsanmuseum.org)
- 목포생활도자박물관 [doja.mokpo.go.kr](http://doja.mokpo.go.kr)
- 문경도자기전시관 [dojagi.munyeong.net](http://dojagi.munyeong.net)
- 방산자기박물관 [www.bangsanm.go.kr](http://www.bangsanm.go.kr)
- 옹기민속박물관 [www.onggimuseum.org](http://www.onggimuseum.org)
- 여주세계생활도자관 [www.wocef.com](http://www.wocef.com)
- 영암도기박물관 [www.yeongam.gurim.go.kr](http://www.yeongam.gurim.go.kr)
- 유럽자기박물관 [www.bcmuseum.or.kr](http://www.bcmuseum.or.kr)
- 이천세계도자센터 [www.wocef.com](http://www.wocef.com)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www.ciayarch.org](http://www.ciayarch.org)
- 한향림옹기박물관 [www.heyrigallery.com](http://www.heyrigallery.com)

#### **주요자료수집**

- 박물관 방문을 통한 기초자료 및 사진자료조사